

國語國文學科의 특성과 발전 방향

柳 龜 相

(韓南大 國語國文學科)

1. 머리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어국문학 과라면 너무 친밀해서 그리 대수롭지 않은 학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어국문학이 무엇 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그리 쉽고 간단하게 는 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와 너무 밀접하고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별 관심 을 가지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각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소홀히 하는 경향 마저 보이고 있는 점은 우리의 교육제를 위해서 크나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어국문학은 우리나라에 있어 우리 민족이 있는 이래 조상들의 모든 것, 즉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종교, 외교 등이 그대로 글로 나타나고 그것을 종합 또는 분석하여 우리의 특성에 맞는 생활관, 민족성, 국가관을 확립하는 데에 어느 다른 학문보다도 중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의 학문이 국어로 기술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어 문법에 맞아야 하며 아울러 국어 문장 서술이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국어 국문학은 또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국어국문학은 교육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과정이 책정되어야 하며,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수 방법과 학습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기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시설과 학습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졸업 후 취업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학과의 성격, 학과의 발전 방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용, 교수 방법, 교재 개발, 학습 평가 등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學科의 性格

서구에는 국어국문학이라는 학과가 없고 국문학과만이 있다. 국어학은 Science 계통의 학과로 분류하고 언어학과 안에 독어학, 불어학, 서반어학, 노어학, 일어학, 중국어학, 국어학 등으로 하위 분류하여 국어학도 그 중의 하나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어학과 국문학을 전공하는 국어국문학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다.

국어학과 국문학의 경우, 서구의 교육 과정은 초급 과정(Lower Division Course)과 고급과정(Upper Division Course)으로 분류한다. 초급과정에서는 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개론류, 연구방법론 등을 개설하고, 전공 과목으로

는 시대별로 공식적으로 개설하고 있어 전공 학과에서도 언어 문학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교육하고 있는 점과 문학을 시대별로 연구하는 점이 특색이다. 그 이외의 전공 과목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설과 유사하다.

동·서양의 이러한 차이점은 동양은 이론 중심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데 반하여 서양은 실용 위주의 학문을 연구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양은 역사나 문학의 단절이 없이 시대와 작가에 따라 문학 사조가 변모되면서 꾸준히 이어왔지만, 국어국문학은 삼국 시대의 한자 빌어 쓰기, 고려조의 한국한문문학과 구비전승 문학의 양립, 조선조의 한국한문문학과 소위 언문으로 표기된 국문학의 이원화가 이루어져 양반 문학과 서민 문학의 양극성은 보여주었을 망정 국민 정신의 일체감의 문학은 보여주지 못했으며, 갑오경장 이후 갑작스런 유입으로 인한 혼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요즈음은 많은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현대의 학문은 우리의 전통을 특성 있게 정리하면서 서구의 학문을 받아들여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만큼 국어국문학도 서구의 어문학을 소화해서 우리의 특성 있는 전통을 재조명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리라 본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국어국문학은 한국인들이 일상 생활 용어로 사용하는 한국어와 그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입으로 전승되어 온 구전문학 또는 그들의 언어를 문자화하여 지어진 여러 형태의 한국 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어국문학과는 이와 같은 교육 및 연구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된 학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국문학과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국문학을 통하여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윤리관과 국가관 및 민족 주체 의식을 고취한다.

둘째, 다른 학문을 이해 연찬하는 데에 기초가 된다.

세째, 한국 언어문학 자체의 전문 학자 또는

교수 요원을 양성한다.

이와 같은 국어국문학과의 성격에 맞는 학과의 교육 목표 없이는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 설정하고 있는 학과의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국어국문학과의 교육 목표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민족의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여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있다.”

3. 學科의 發展

앞에서 언급한 국어국문학과의 세 유형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학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와 둘째의 성격이 중심이 되어 교육된 시기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이었던 고구려의 태학(소수림왕 2년 : 372)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태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하였는가는 명증이 없는 현재로서는 비록 추정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역사서인 舊唐書에 따르면 “其書有五經及史記 漢書 范曄後漢書 三國志 孫盛普春秋 玉篇 字統 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 우리 문자가 없어 비록 우리 말이나 우리 문학에 관해 교육하지 못하고 중국의 한자를 빌어 쓰던 때인 만큼 중국의 경서나 역사서 및 문학을 교육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어국문학과 교육의 원시 형태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 후 신라 國學(신문왕 2년 : 682), 고구려의 國子監(성종 11년 : 992), 成均館(충숙왕 1년 : 1314)으로 개명되거나 자리를 옮기며 조선말까지 이어져 왔다. 그리고 고종 20년(1883)에는 외국어 전문 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 국어과 교육의 양상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셋 번째 성격이 두드러졌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외국어나 외국 문화 수용의 기초적 도구로서의 국어교육이 중시되었다. 구한말 고종 32년(1895)에는 한성사범학교의 관제가 고시되고, 배재학당이 설립되면서 국어과 교육 목표는 더욱 약화되어 외국어와 외국 문물 이해와 수용에 필요한

도구 교과로 전락되었다.

세계 성격의 국어국문학과 교육이 시행된 것은 1924년에 우리 민족의 숙원이었던 민립 종합대학 설립을 끈질기게 방해하여 오던 조선 총독부가 한국에 있는 일본인 자제들의 고등교육을 위하여 경성제국대학 예과 2년제를 설치한 2년 뒤인 1926년 4월 4년제 본과를 다시 설치하고, 그 안에 법문학부 조선어문학과를 신설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 예과의 학생 비율은 65:35로 일본인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과는 달리 우리의 언어와 문학에 대하여 연구해 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日人 교수들의 식민지 사관에 의한 교육으로 문제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명실상부한 국어국문학과는 1945년 광복후 미군정청에 의하여 제정된 미군정법 제102호를 근거로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사립으로 고려대학교, 연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에 국어국문학과가 설치되면서 오늘에는 74개 학과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의 고유 문자가 없는 탓으로 중국의 여러 서적을 교육 또는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문자 창제 이후에도 조선조말 갑오경장이 일어날 무렵까지 그런 교육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후손된 우리로서는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다. 일제 40년 동안도 조선어학과가 설치되는 되었지만 일제의 갖은 억압 속에서 짓눌린 상태 아래서 지극히 소극적인 국어국문학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 또한 서글프지 않을 수 없다. 광복에서부터 우리의 주체성을 살리면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지만 6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의 복잡성과 교육과정의 미확립, 교재의 불완전한 개발 등으로 소기의 교육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각도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소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교육 정책 아래 교육과정 개발, 교수 방법과 학습 방법의 개선, 바람직한 교재의 개발,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의 확보, 새로운 학문 추세의 조화 등을 유효 적절하게 반

영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學科 學問 發展의 趨勢

일본의 관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안에 조선어문학과가 설치된 1926년부터 따지면 62년, 국어국문학과가 우리나라에 설립된 1946년부터 따지면 42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국어국문학과의 교육이 실시되어 왔다. 역사로 따지면 반세기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너무 성급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효과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 보다 성과가 있었으리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어국문학과는 대단한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그러나 질적 성장이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써 왔고, 그 미명 아래 대학이 개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학과의 개폐, 정원 조정, 학점의 증감, 실험대학의 운영 등 형식적인 면에서 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학과의 질적 발전을 위한 학과의 교육 내용에 관한 개혁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지난 날 통제와 지시 속의 학교, 학과 운영에서 학과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으로의 변화가 눈앞에 가로놓인 마당에 국어국문학과의 교육 내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면한 과제인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교육 내용을 위해서는 국어국문학과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의 발전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외국의 자국어 문학과 학문적 추세와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국어국문학과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설치 목적은 대략 국어국문학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직접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당해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학문적 성과를 통하여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간접적인 봉사를 하도록 한 것일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부

합하는 직장인으로는 대학 교수, 학문 계통의 연구 기관 및 언론·출판의 전문인, 중·고등학교 교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인력 수급 문제이다.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이 취업할 곳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학생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결과로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상당수 고급 인력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심각성이 있고, 직장을 갖는다고 해도 전문 영역과는 관계가 먼 직장을 구하게 되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교사 자격증 문제이다.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학과의 학생들이 모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에 해당하는 학생만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교육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 문제는 국어교육과의와 관계에서 어떤 조화를 앞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세째, 기능인 문제이다. 국어국문학과와 본래 설치 목적은 시인, 소설가, 수필가, 시나리오 작가 등과 같은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보다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학자로서만 모두 양성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보면, 본래 목적을 살리면서 기능인까지도 배출할 필요가 있게 되어야 하므로 본래 목적의 조화 있는 변질 내지는 개혁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과의 학문 발전을 위해 다음의 내용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국어학과 국문학의 보다 연계적인 접근 문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이론적 접맥에 대한 과제의 논의가 필요하다.

세째, 고전문학의 광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문학에 대한 평가 내지는 활용에 대한 문제의 제고가 필요하다.

네째, 한국 고전문학의 근간인 한국 한문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맹목적인 서구 이론의 수용보다는 우리 이론과의 조화 있는 수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에 진출하여 생활할 수 있는 실

용적 기능 교육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공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전공 학점의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서구 이론에 관한 문제를 더 짚어 보기로 한다. 세계 학문의 추세는 여러 가지 주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학 사조의 큰 물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나타난 구조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구조주의 언어학이 발생했다. 그 결과 언어의 통합과 분석이 언어학 연구의 주조를 이루었으며, 곧이어 구조주의 문학이 등장되면서 문학 작품의 구조와 분석 비평, 신화 비평, 문학사회학 등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합리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변형 생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어학과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요즘에는 복잡한 사회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하루가 다르게 발전 또는 변천되는 학문이 없히고 설켜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무비판적으로 서구 이론을 받아들이다 보면 새로운 이론을 뒤따르기만 하다가 학문다운 학문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국어국문학에서의 서구 이론의 수용은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변증법적으로 체계화하여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5. 學科의 現況

첫째, 1988 학년 현재 전국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국문학과와 국문학의 총 수는 74개 학과에 학생 수 3,640명, 교수 수 733명(1988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기준한 것임)에 이르고 있다.

둘째, 학과의 교육 목표는 설정되어 있는 대학도 많이 있지만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학과의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행인이 갈 목적지 없이 무작정 걸어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 목표 없이는 학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편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과 운영이나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반드시 서둘러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이 목표에 따라 학과의 모

든 운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50개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과목이 제일 많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52개, 43개, 41개, 40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제일 적은 대학이 11개, 20개, 22개의 순으로 나타나 있어 그 차이가 심한 실정이다. 대략적인 평균치로는 32~33개 과목 정도로 개설하고 있다.

전공 필수 과목을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22개, 16개, 14개의 순이고, 가장 적게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0개, 3개, 5개, 6개의 순이다. 평균은 대략 10개 정도이다. 전공 필수 과목이 적게 개설된 대학은 전공 선택 과목의 수가 많고, 반대로 전공 필수 과목이 많이 개설된 대학은 전공 선택 과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되는 경향이다.

전공 필수 과목을 많이 개설하느냐 적게 개설하느냐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국어국문학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르치느냐의 문제이므로 대학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육 목표가 대동소이하고, 기초 과목으로 인식되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한 차이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에 맞게 잘 개설하고 있지만 간혹 그 대학에 재임하고 있는 교수의 전공에 어느 정도 맞추어 개설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교수가 부족할 때는 교수를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네째, 교육과정의 운용 문제이다. 아무리 교육과정이 이상적으로 잘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수의 구미에 맞도록 과목을 설강하여 강의한다면 이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는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가급적 유리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강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각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 배정되어 있는 것은 조교실, 조교 1~2명, 타자기 1대, 서류 보관용 캐비닛 정도다. 교수와 학습 활동을 원만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교의 수가

현재보다 배 이상 많아져야 하고 워드프로세서가 있어야 하며 학과의 도서관 겸용의 도서실이 필요하다. 아울러 종래에 분필과 교재, 교수만으로 국어국문학의 교육이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오던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국어학이든 고전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간에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 기자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여섯째, 학점 배정 문제를 보면 대부분이 전공 과목 이수 학점을 51학점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89학점은 교양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다. 아무리 학부 과정이 폭 넓은 교양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은 문제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 51학점을 이수하고 그 이외는 학점따기 쉬운 과목을 자신이 학문하는 데 도움이 되든 않든 가리지 않고 학점을 채워 메꾸는 식의 학습을 하게 되어 본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체계가 없고 마구잡이식의 학점 수득보다는 최소한 전공 과목 이수 학점의 하한선을 70학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공의 특성을 보다 살리는 편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6. 教育課程 編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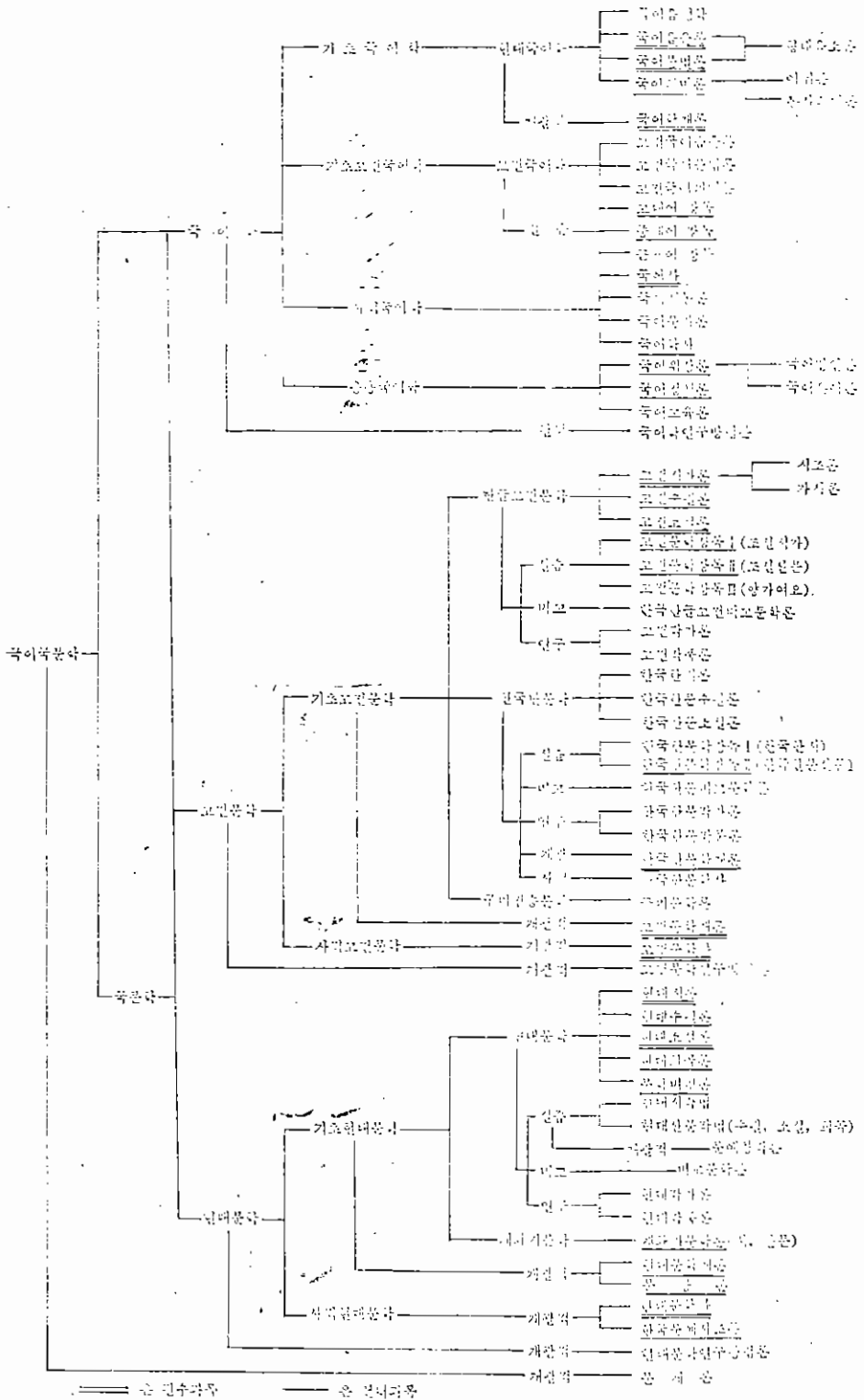
국어국문학과와 교육과정 편성은 학과의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목표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맞는 기본적인 원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과의 전공 분야를 국어학과 국문학으로 2분하는 문제와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3분하는 문제가 있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3분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공 51학점, 교양 42학점, 일반 선택 47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는 학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전공 70학점, 교양과 일반 선택 70학점 이상씩 이수하도록 한다.

세째, 전공 필수 과목은 전공의 각 영역을 총괄하는 것으로 전공의 각 세부 영역을 전공하는

<표 1> 유아보육학과의 교과 영역별 전망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네째, 전공 선택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초적이고도 교량적인 과목으로 지정한다.

다섯째, 현재 대학에 따라서 전공 필수 과목을 18 학점만 지정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대학은 50 학점이 넘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점은 합리적인 선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전공 과목은 피교육자가 사회에 진출하여 전공을 살려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세부 전공을 학습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외국의 학문 발전의 추세는 가급적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과목의 내용의 발전이 대부분이므로 이 문제는 기존 과목의 명칭에서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덟째, 교수의 전공에 부합되는 과목이나 학생들의 취향에만 맞는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국어학과 국문학,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및 한문학간의 연계 과목을 개발하여 전공 영역간 학문 발전의 영향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 영역별 전공을 앞의 <표 1>과 같이 도표화하고자 한다.

대학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전공 필수 과목을 지정해서 한 대학씩 비교를 하면 크게 다르다. 그러나 대학을 종합해서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수자를 보면 본고에서 지정하는 것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에 각 대학 교수들의 생각이 어

떤 일치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전공 필수 과목

전공 필수 과목을 지정하는 데는 첫째로 학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을 지정하는 것, 둘째로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 기초가 되면서도 전공의 특성을 나타내는 과목을 지정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안은 전공 영역별로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볼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 하나씩을 지정하는 것이다.

둘째 안은 첫째 안이 전공 영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는 하지만 이 과목만을 수강하고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필자의 소견으로는 전공 영역별로 그 다음으로 기초가 되는 과목을 두 과목 정도 더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 국어학(12 학점)

- 국어학개론
- 국 어 사
- 국어음운론
- 국어문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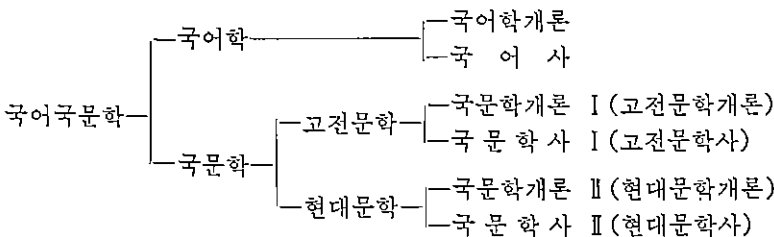
(2) 고전문학(12 학점)

- 국문학개론 I (고전문학개론)
- 국 문 학 사 I (고전문학사)
- 고전시가론
- 고전소설론

(3) 현대문학(12 학점)

- 국문학개론 II (현대문학개론)
- 국 문 학 사 II (현대문학사)
- 현 대 시 론
- 현대소설론

<표 2> 전공 필수 과목의 기초 과목



2) 전공 선택 과목

앞의 전공 영역별 교과목의 도표는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들이다. 그러나 교양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인한 전공 과목의 학점과 시간의 제한 또는 전공 영역과 학생의 능력 제한 등으로 인해 전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공의 영역별 기초가 되는 과목 세부 전공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과목, 이것의 연습이나 실습에 관계되는 과목을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그 과목을 전공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어학(20 학점)

국 어 음 성 학	3 학점
국 어 의 미 론	〃
고대 국어 강독	〃
중세 국어 강독	〃
국 어 위 상 론	〃
국 어 학 사	〃
국 어 학 연 습	2 학점

(2) 고전문학(20 학점)

고 전 수 필 론	3 학점
구 비 문 학 론	〃
한국한문학개론	〃
한국한문원전강독	〃
고전문학강독Ⅰ	〃 (고전시가론)
고전문학강독Ⅱ	〃 (고전산문론)
고전 문학 연습	2 학점

(3) 현대문학(20 학점)

현 대 수 필 론	3 학점
개 화 기 문 학 론	〃
한 국 희 곡 론	〃
한국문예사조론	〃
한국문학비평론	〃
한국현대문장론	〃
현대 문학 연습	2 학점

(4) 기타(3 학점)

국 어 문 체 론	3 학점
-----------	------

위에서 전공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은 22개, 63학점이다. 학생들은 이 과목들 중에서 자

신이 전공하는 데 필요한 학점인 34 학점(전공을 70 학점으로 하고 필수 과목을 36 학점으로 할 때를 가정해서) 이상을 이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도표에는 있어도 학부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은 세부 전공이므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강할 과목으로 보면 될 것이다.

7. 教授方法

교수가 학생들을 교수하는 데 있어 어떠한 과목이나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과목에 따라, 단원에 따라, 학년에 따라 그때 그때의 교수 방법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교수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쌓은 개선해야 할 공통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만한 교수를 위해서는 수업 이전, 수업시, 수업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가 있다.

1) 수업 이전

충실한 교수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이전에 갖추어 있어야 할 여러 여건들이 있다.

첫째, 교과목에 걸맞은 교수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체계 있고 충실하며 수업하기 좋은 교재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과제를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학과 도서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과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교가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육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째, 한 학기 동안 교수할 교수 요목을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작성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이 요목에는 교수 내용, 과제 부과, 성적 평가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 학생들과 약속하여야 한다.

일곱째, 매시간마다 수업 계획과 수업 방법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업 시간

수업 이전에 갖추어야 할 사항을 밑받침으로 하여 수업 시간중에 교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행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재의 체재 및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둘째, 수업 내용이 사실이거나 지식일 경우는 교수 위주의 수업 방법도 무방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라도 학생 위주의 수업 활동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수가 열성껏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제점을 가끔씩 많이 제기하여 학생들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네째, 교수는 학생이 학습하는 데 적·간접으로 관련되는 참고 문헌을 수시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적절한 시청각 또는 실험 기구를 이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그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그 시간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과제 부과는 경·중을 가려서 하되 단절감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과중해서 흥미를 잃어도 안 되므로 유효 적절하게 부과한다.

여덟째, 학생들이 예습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업 이후

원만한 교수를 위해서는 수업 이전에 갖추어야 할 여건이 마련되고 수업 시간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업 이후의 교수의 활동이다. 이 활동은 다음 수업을 잘할 수 있게 되느냐 잘할 수 없게 되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첫째, 수업이 끝난 후 수업의 성패 여부를 교

수 스스로가 매번 평가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수시 평가도 참고로 한다.

둘째, 성적 평가는 교수 요목에서 학생들과 약속한 대로 정확성과 객관성이 있게 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부여된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학습의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네째, 교수나 학생의 수업 이후의 활동은 다시 수업 이전에 입력되고 그것은 수업에 영향을 주고 수업을 실시한 뒤의 교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순환하면서 보다 나은 교수 활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8. 맺는 말

앞에서 국어국문학과 성격의 규정과 학과의 발전에 대한 고찰을 해 보았다. 그리고 국어국문학과에 관한 동·서양의 학문 발전 추세를 살펴보고 학과의 제반 현황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 방법에 대한 점검과 바람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의 해 보았다. 그러나 학문의 성격이 그러하듯 학과에 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경제·문화·과학·교육 등 모든 것이 수시로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 또한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누구보다도 앞을 내다보고 과거와 현실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선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국어국문학과에 몸담고 있는 국어국문학도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좋은 것은 계속 이어받고 더 바람직한 것을 개발·발전시켜 명실공히 이상적인 교육이 되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